

러시아기업, 연간 335억달러 뇌물 등 지출

-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2년간 반부패 관련 조사프로젝트를 진행중인 Indem사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, 러시아기업들은 사업허가, 각종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뇌물 등 명목으로 2000년 및 2001년에 연간 335억달러(2002년 정부지출의 약 47%, GDP의 11% 수준)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
 - 이는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 : TI)가 최근 러시아기업이 emerging market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제공에 가장 익숙할 것으로 추정한 것과 궤를 같이함

- Indem 보고서는 러시아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82%가 뇌물을 제공하였으며, 뇌물액수는 전체 매출액의 10%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
 - 기업체 뇌물의 75%는 조세 감독관 등 중앙정부의 지방관료와 시정부 하급관료에게 제공되었으며, 20%는 지방정부관료, 5%는 연방정부관료에게 각각 제공된 것으로 조사됨
 - 특히, 뇌물의 99%가 감독·사업허가 등 집행권한을 보유한 관료에게 집중되어 여전히 통제경제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 - 부문별로는, 화재시설 및 위생감독 등에 종사하는 관료에게 연 2회, 뇌물의 34.6%가 집중되었으며, 다음으로 사업허가당국 관료에게 34.2%, 조세감독관 등 재정당국 관료에게 22%가 각각 제공된 것으로 나타남